



재벌개혁 “생존 각오로 실천을”

기업투명성·상호 지급보증 해소등 5개항 ‘합의’ 빛더미 경영·즉별전횡등 악순환 청산해야

김대중 차기대통령과 현대 삼성 LG SK등 4대 재벌회장이 13일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개항’에 합의했다. 아직 원칙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이지만, 합의 5개항은 한국 경제의 기초를 새로 다지는 획기적인 것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조치가 IMF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했다. 빛더미 경영, 불투명한 회계장부, 즉별전횡의 전횡 등이 재벌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 이런 것들은 지난한 사업관행과 소유 및 의사결정권의 집중을 가져왔다. 차입경영이 그 예다. 새로운 사업

을 구상하고 추진키 위해서는 새로운 주주들이 참여하는 증거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재벌들은 증거보다는 차입을 선호했다. 또 그



◇김대중 차기대통령과 4대 재벌그룹 회장들이 13일 5개항의 재벌개혁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니 자기자본보다 많은 차입금을 가진 비정상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도무지 투명성이 없는 기업에 어떻게 돈을 꾸어주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5개항이 사실상 재벌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업종은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

문대기업으로의 변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집단에다 소유집중이라는 특징이 덧붙여진’ 재벌이라는 용어가 우리 경제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기다.

그동안 정권교체 때마다 재벌개혁은 거론됐고, 그때마다 개혁청사진이 나왔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관료 및 재벌로 얽힌 정치경제구조는 근절되지 않았다. 다행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개항에 대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결의했다. 지배주주의 재산도 출자키로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게 이루어온 그동안의 산업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이 단순히 위기를 인식하자는 논리만으로 들리지 않는다.

정성은 기자

“정진하면 어려움 없다”

이번에야말로 같이 사는 자세로 국민과의 지혜와 각오를 엮어야 한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행방만이 남았다. 경쟁에서도 이혼보다 실천, 정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네거리 넓은 길에 대중을 모아놓고 온종일 떠들며 좋은 일 말하여도 스스로 닦은 수행

이 바르지 못하면 소우에 경 엄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을.”(화엄경 보살문명품)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이다. 마치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끝없는 정진 앞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유교경)

美 시드박사 ‘인간복제 병원’ 설립 선언 비윤리-과학발전 ‘논란’

지난해 2월 복제양(羊) 클리로 촉발됐던 ‘생명복제’ 논쟁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나섰다.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복제 대상이 인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 리처드 시드는 6일 “3개월 내에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인간복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설립부부를 돕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미 백악관과 의회는 즉각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우리는 인간복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도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사용금지를 연구회화하고 인간복제 과정에서 인체 세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간복제금지법안 채택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인간복제연구 지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간복제연구가 유용한 방향으로 과학을 진보시킬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사물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복제에 대해 기독교는 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로마교황청은 8일 생명과 학인 부원장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간을 복제하면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것.

불교계도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용정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인간복제로 인해 자연의 원리가 깨진다면 불교의 중도사상이나 연기법, 생명의 끈기함을 말하는 각종 계명은 한낱 고전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창조론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에서나 문제될 뿐 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하는 불교는 이같은 문제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공무원 쌀농사로 이웃도와

경기시흥시 연성동사무소 직원 13명이 주민들과 함께 휴경지를 경작, 수확한 쌀을 관내 불우이웃에게 나눠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6월 위치한 소유 휴경지 2천2백평에 쌀농사를 지어 11월 21가마를 수확, 5가마로 농약 대와 비료값을 제하고 나머지를 불우이웃 44가구에 나눠줬다.

재미교포가 ‘사랑의 장기기증’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재미교포 오명숙씨(55)가 고국의 젊은이에게 신장을 기증해 혼란한 화제가 되고 있다. “내 작은 희생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힘은 태평양을 뛰어넘었다. 수술은 14일 한양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장을 기증받은 이성우씨(32)는 “빨리 나아서 장가부터 가라고 하셔서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해외여행 경비 이웃돕기 기탁

결혼 37년 해외여행 경비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은 초로의 불자부부.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로 구세군본부를 찾아 1천만원의 기탁했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 도저히 여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슬까 고민하다가 자선냄비 성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세군측은 이를 받아 기탁할 말아달라는 기탁자의 부탁을 듣고 그동안 공개를 알리지 않고 한 모임에서 이같은 사연을 밝혔다.

음식쓰레기 30%서 25.9%로

음식쓰레기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종이류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는 ‘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환경부가 96년과 97년에 걸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O)에 의뢰해 전국 1만여곳의 쓰레기 발생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음식쓰레기가 30%에서 25.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재기 유통업자 첫 고발

물가폭동에 따른 차익을 노려 매점매석한 유통업자가 처음으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커피대리점 S상사 대표 이모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을 위반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커피를 사들인 뒤 가격폭등을 노려 출고량을 30% 가량 줄인 혐의다.

생활정보

아동 정서장애 무료상담

화원교육연구소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아동의 정서장애에 대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해준다. (02)501-2366.

장시간 주차 배터리 방전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면 엔진오일이 밑으로 흘러내려 유막이 얽혀서 시동을 걸 때 엔진 마모가 심해진다. 1주

호텔·백화점 적정온도 초과

고급호텔과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등 대형건물이 실내온도를 적정온도(18~20도)보다 높게 유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오후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지역 26개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프라자호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송풍 롯데호텔, 국회의의의관 등이 23.8~24.6도로 적정온도를 초과했다.

생태보호지에 골프장 ‘물’의

인천시가 생태계보호 예정지인 중구 무의도에 골프장 허가를 내 주려고 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12일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18층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환경운동연합은 인천 앞바다의 농약오염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은 국민이 참여하는 ‘장롱속 속모으기운동’이 요원의 물길처럼 번지고 있다. 14일에는 수집된 1억1천만달러 어치의 금이 김포공항을 통해 유럽지역으로 첫 수출됐다. 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머니에 넣어 있는 기념 반지와 팔찌·목걸이·성패 등을 주저없이 내어 놓고 있는 반면 정병 달러가 되는 금괴(金塊)는 나오지 않고 있다. ‘못 보배 중의 으뜸인 황금’. 그러나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이제는 가진 이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다. 경전상의 황금이 어떻게 설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법구경>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 지니라. 부디 스스로 금은 따위의 보물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잡아함 마니주경>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큰 못에 가서, 물 속에 있는 순금의 그림자를 보고는 금이 있다고 외쳤다. 그리고 곧 물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면서 금을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하니 몹시 피로한 채 도로 나와 앉았다. 조금 있다가 물이 맑아지자 금빛이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왔다가 거기서 아들을 보고 물었다. “너는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처럼 지저 없느냐?” 아들이 말했다. “물 속의 순금이 있기에 물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고 찾았습니디. 그러나 금은 얻지 못하고 이 처럼 지쳤습니디.” 그 아버지는 물 속의 그림자를 보고, 그 금은 나무 위에 있는 금인데 그 그림자가 물 속에 나타난 것임을 아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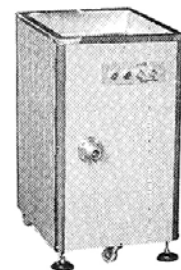
알려 주었다. 어리석은 자 범부들도 무지하기 그와 같다. ‘나’가 없는 다섯 가지 쌓인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니 저 순간 그림자를 본 사람이 부지런히 애써 그것을 찾았으나 한참 수고하고 소득이 없음과 같아라. <백유경>

저 세상 사람들은 복덕이 많으므로 거리나 길,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이면 밝은 구슬기둥이 있어 해처럼 빛을 내는데, 사방 80유승의 거리를 환히 비추어 주는구나.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밝은 구슬기둥을 스치면 보배영락이 비 오듯 쏟아지는 데, 이 영락을 사람들이 걸치면, 3선천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리라. 곳 곳마다 금, 은, 구슬 등 온갖 보배가 가득하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배산에서는 광명이 늘 흘러 나와서 성 안을 골고루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광명을 만나면, 다 기쁨에 넘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또 발타비라사제나라는 큰 야차신이 있는데, 이 신은 밤낮으로 시루발성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온 땅에 물 뿌리고 쓸어 언제나 깨끗하게 하느니라. <미륵대승불경>

생상품

“음식을 처리기”

사람을 비롯 식당과 가정 등에서 음식을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맛달식 음식물처리기 ‘하이리인 써보래’가 출시됐다. 맛달형태로 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도 잘 분쇄하는 이 제품은 시간당 100kg~15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처리된 잔반은 분쇄 과정에서 열분해 기름성분이 감소돼 가축 사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 경량 소형인 이 기계는 키가 달려있어 쓰레기의 위치 따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설비 부담이 없고 조작하기 쉽다. (주)대보산업, 가격은 2백30원. (0343)56-8468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재물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판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추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환관, 가설, 인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고통과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적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戊寅年 새해 인사드립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우 시달립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꿈과 희망으로 넘어
1998년을 찬란한 영명으로 피어내길
모든 불자님과 함께 발원합니다.

사업은 번창하시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웃음으로
온 세상이 부처님 향기와
자비로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